



하느님의 요새, 기도의 성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자비의 문화는
끊임없는 기도를 바침으로,
성령께 기꺼이 마음을 얹으로써,
성인들의 삶을 신뢰함으로써,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함으로써
실현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교황 교서 「자비와 비참」(Misericordia et Misera) 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의 주요 활동 목표는 알리기, 기도하기, 실천하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정보가 널리 퍼지게 하고, 하느님의 자비 활동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설립자이신 베렌프리트 판 슈트라텐 신부님에게 ACN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철의 장막을 따라 수도원을 건립하여 ‘하느님의 요새’를 굳건히 하고 기도를 통해 공산주의 치하에 있던 동유럽 교회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나 평화를 위한 활동에 앞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승리를 거둘

때 우리는 세상의 다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기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는 말을 때때로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나 세상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되며, 대신 기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구하는 기도가 전부라면 결코 하느님의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결코 ‘ultima ratio’, 즉 충분조건이 아니라 ‘prima ratio’, 필요조건인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실천 속에 하느님께서 임하시게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때만 그곳에 머무릅니다. 기도는 자연의 법칙조차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우리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세상일을 헤쳐 나가면, 우리는 실제로 세상의 원인과 결과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느님의 자비가 머

님께로 나의 영혼을 데려다 주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그분과 내적인 애정을 쌓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향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항상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평화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굶주리고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ACN의 설립자, 베렌프리트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승리를 거둘 때
우리는 세상의 다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동참할 준비도 못한 채 자비를 간구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헛되지 않습니까!”

무르며 파괴적인 힘의 복잡한 작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느님께서서는 단순히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당신의 거룩한 계획을 나누며 존엄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즐거운 산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는 한없는 사랑이 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으로 저희는 전 세계에 하느님의 요새를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봉쇄수도원의 수녀님, 수사님들은 쉬지 않고 손을 하늘나라에 뻗어 모세와 같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하느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24시간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르틴 바르타 신부
국제 ACN 지도 신부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리아,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형제자매들이 겪고 있는 끔찍한 상황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ACN 활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22개국 지부에서 모금 활동을 펼쳤고, 시리아와 이라크의 대주교님들을 초청하여 한국에 계신 후원자 여러분께 현지에서의 증언을 전해 드렸습니다. 2011년에 시리아 위기가 시작된 이래로,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는 중동 지역 프로젝트에 지금까지 640억 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에 계신 후원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부금도 포함됩니다. 한국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과 자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과 몇 십 년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ACN 가족 여러분께서는 당시 어려움에 처해있던 한국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제는 한국 후원자 여러분께서 다른 나라의 형제자매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기도와 연대가 함께하는 사랑의 다리가 건설된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여러 방법으로 저희가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겨울에는 ACN의 프로젝트 파트너 여러분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 받았습니다. 시리아의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녹화한 것입니다. 기도와 행동으로 아이들을 지원해 주신 ACN 후원자 여러분을 향한 감사의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ACN 한국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전시회를 기획하였고, 사랑의 메아리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방법으로 "ACN and ME(Middle East), ACN과 중동 그리스도인"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오프라인 전시회를 열어, 시리아 아이들의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후원자 여러분들께 이 그림들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3월 8일(수요일) 오후 7시,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3층 바실리오홀)에서 열리는 ACN 한국지부 총회에 함께해 주십시오. 시리아 아이들의 그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리아 아이들의 그림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에 계신 여러분의 기도를 전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총회에 참석하시는 여러분께 짧은 인사와 기도를 담은 영상 메시지를 녹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고통을 겪고, 전 세계를 향해 수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큰 행복을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올 겨울에 기도와 행동으로 아이들의 두 손을 꼭 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회는 ACN 한국지부와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하며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ACN으로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총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전화(02-796-6440) 및 인터넷(<https://goo.gl/Xh0vY3>)을 통해 신청해 주십시오.

3월 8일에 만나 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요하네스 콜라우자

ACN 한국지부장 올림

시리아 아이들이 그린 시리아의 평화

오프라인 전시회를
ACN 한국지부의
2017 총회에서
개최합니다.



ACN 한국지부 2017 총회 참석하기

전화 02-796-6440

인터넷 <https://goo.gl/Xh0vY3>
(또는 우측의 QR코드를 스캔)

QR코드





ACN 한국지부 2017 총회

일시: 2017년 3월 8일 (수요일) 오후 19:00

찾아오시는 길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희

주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내용: ACN 한국지부 총회 및 전시회
'시리아 아이들이 그린 시리아의 평화'

-지하철 이용시 2호선 홍대입구역 하차
(2번 출구 이용 도보 12분)

- 식순:**
1. 이사장 시작기도
 2. 정기 총회
 - (1) 2016년 활동 및 결과 보고
 - (2) 기타 안건
 3. 폐회사 및 마침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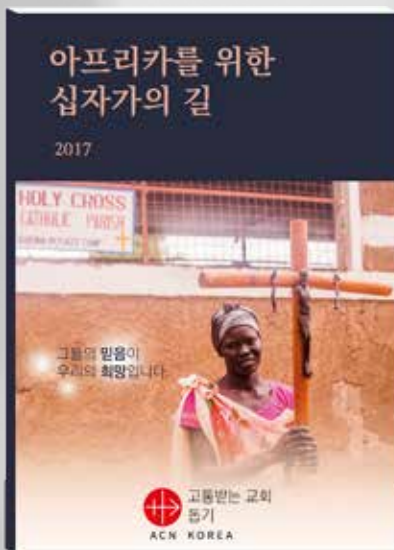
-버스 이용시 홍대입구역 하차
간선 271, 273, 602, 760 등
지선 5712, 5714, 6712,
6716, 7016 등
광역 6002, 3000 등



2017 사순시기

<아프리카를 위한 십자가의 길>

3월 1일(수)은 재의 수요일로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올해 ACN은 사순시기부터 부활절까지 아프리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아프리카의 믿음은 우리의 희망입니다.”라는 표어 아래 아프리카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기억하며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ACN의 프로젝트 파트너인 아프리카의 주교, 사제, 수도자, 교리교사와 ACN이 하나가 되어 <아프리카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완성했습니다.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십자가의 길 소책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전화 02-796-6440

문자 010-7475-6440
(성함, 받으실 주소, 원하시는 부수와 함께 신청 문자를 남겨 주세요.)

인터넷 <https://goo.gl/RjqlfS>
(또는 우측 QR코드를 스캔)

QR코드



ACN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일시 2017년 3월 10일

장소 서울대교구 방배동성당(서울 서초구 방배로5길 43)

문의 전화(02-796-6440) 또는 이메일(info@churchinneed.or.kr)

하늘에서 주신 귀한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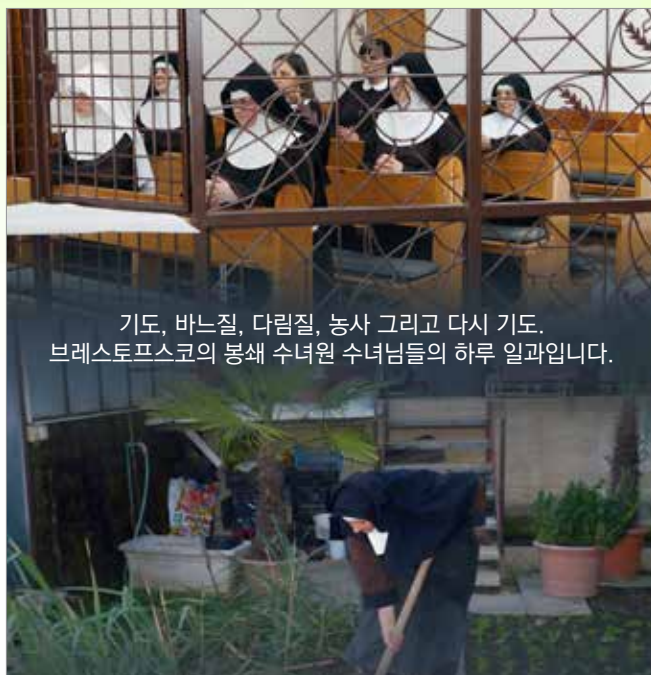
“기도는 내가 마음 내킬 때마다 때때로 하기도 하고 말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말고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무레사(Murhesa)에 위치한 성모의 트라피스트회 수녀님들 스물한 분께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말씀을 인생의 모토로 삼고 일상생활을 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곳 콩고민주공화국 부카부(Bukavu) 지역에서는 수많은 고통, 고난, 약탈, 살인 등이 벌어졌습니다. 수녀님들께서는 이 끔찍한 일들을 겪으셨지만, 어떠한 기도도 사라지지 않고 모두 하느님께 닿는다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희망을 잃지 않으십니다. 현재 전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르탕스(Hortense) 수녀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작은 사업들’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토끼사냥, 초 만들기, 양봉, 비누 생산, 바느질 등이 그것입니다. 수녀님들께서는 소소한 장비들을 마련하셨지만, 저장고와 작업실로 사용할 공간 부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셨습니다. 문, 창문 등 완성된 공산품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쇠, 유리 등 기본 재료를 구입해서 스스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ACN은 젊은 수녀님들께서 생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금 **42,600유로(약 5,300만 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500유로(약 2,600만 원)**을 노약자들을 위한 의약품과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비용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오르탕스 수녀님께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면서, 끊임없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보낸 선물이 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녀님들이야말로 바로 ACN과 신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 한가운데 위치한 평화의 오아시스.
무레사의 트라피스트회 수녀님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레스토프스코(Brestovsko)의 봉쇄 수녀원 수녀님들께서는 생계 유지비를 스스로 충당하기 위하여 바느질을 하고, 빵을 굽고, 곡괭이질을 하며 농사를 지으십니다. 수녀님들께서는 이렇게 노동을 하고 방문객을 맞이하며 바쁘게 생활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에 열중하시며,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며,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실천입니다.”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매일 마음에 새깁니다. 수녀님들께서는 전쟁의 상처에 허덕이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생활하십니다. 봉쇄 수녀원은 아직 보수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실과 화장실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다.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수련수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만, 수녀님들께서는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난방비입니다. 책상, 의자, 침대 등 가구들은 간소화하거나 심지어 아예 없애고도 살 수 있지만 난방 없이는 수녀님들께서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결코 지내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자그마한 태양열 활용 시설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야친타 수녀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도움을 구합니다.”라고 하시며 ACN의 지원을 청하셨습니다. ACN은 이에 응답하여 **2만 유로(약 2,500만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예수님과과의 만남은 우리에게도 그저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바느질, 다림질, 농사 그리고 다시 기도.
브레스토프스코의 봉쇄 수녀원 수녀님들의 하루 일과입니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비의 실천은 수공업과 같습니다.”라는 글을 남기신 바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녀님들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자비의 활동을 보여 주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수녀님들은 자비가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는, 어머니 교회의 얼굴이자 손길입니다.

수공업과 같은 자비의 실천! **파키스탄**에 있는 예수 마리아 자비의 수녀회는 주로 젊은 여성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사회는 남존여비 사상과 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억압받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여성들이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소송은 꿈도 꾸지 못하며 무슬림인 가해자와 강제결혼을 당하는 일마저도 흔히 일어납니다. 게다가 피해자 가족 전체가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여성들이 이러한 차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교육뿐입니다. 수녀님들께서는 여성 교육, 특히 가난한 이들 중 가장 가난한 여성들의 교육에 온 힘을 다하십니다. 4세~16세 사이의 부모 잃은 아이들, 거리의 아이들이 수녀님들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라호르의 수도원을 이제 진정한 고향 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현재 수녀님들께서는 어려움에 봉착하셨고, 이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빈약한 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연로하신 수녀님들께서 편찮으셔서 돌보아 드려야 합니다. 또한 벌써 80년 이상이 된 수녀원 건물은 물이 새고 녹이 슬었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실 보수가 시급합니다. ACN은 이에 **1만 유로 (약 1,200만 원)**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남아메리카, 동유럽, 아프리카의 수녀님들께서는 열악한 환경,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자비의 실천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어떤 물질적 보상도 없는 수많은 일에 매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힘이 소진되어 지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녀님들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자비는 기쁨을 일깨웁니다.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어 새 삶의 가능성을 열어 주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한 인생이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희망으로 열어 주는 것입니다. **볼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브라질**의 수도원에서 수많은 수녀님들께서 희망을 품고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카메룬, 르완다, 나이지리아**의 수녀님들께서도 수많은 활동들을 하십니다. 교리 교육, 청년 사목, 전례, 노인 부양, 환자 간호, 학교 수업 진행, 고아와 장애인 보호, 본당 서적 관리, 의약품 제공 등 많은 일들을 결코 남들 앞에 내세우지 않은 채 겸손하고 묵묵히 해내고 계십니다. ACN 가족 여러분의 후원이 없었다면, 수녀님들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수녀님들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 그들과 함께하십니다. 이 사랑의 실천 안에서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20)

파키스탄

페루

불행이 축복으로 변하다

인도네시아는 대표적인 이슬람교 국가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니아스(Nias) 섬은 ‘그리스도인 섬’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75만 인구 중 개신교 신자가 55만 명, 가톨릭 신자가 15만 명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섬에 성 글라라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은 구농수치(Gunung Suci) 산의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농수치 산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이며, 수년 동안 치유의 산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약탈당하고 노예로 끌려갔던 수백 년의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1832년에 프랑스 가톨릭 선교사들이 도착하여 이곳에 처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선교사들은 곧 순교하였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네덜란드 식민 통치자들을 몰아내고 대신 들어와 일본 치하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수많은 주민들이 일본군에 의해 총살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산 정상에는 일본의 군사 병커가 남아 있는데, 현재는 수도원 공간이 되었습니다. 글라라 수도원 수녀님들은 이곳에 큰 십자가를 세우고 루르드 그로토(Lourdes grotto) 성당을 지으셨습니다. 매일 수많은 이들이 성당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불행의 상징이었던 곳이 축복의 요새가 된 것입니다.

수녀님 서툰한 분께서는 이곳 봉쇄 수녀원의 엄격한 규칙을 따르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전기가 끊길 만큼 공공시설도 확충되지 않았습니다. 수녀님들께서는 스스로 생계를 잇기 위하여 초를 만들고, 미사 제병을 굽고, 전례복을 지으며, 소규모로 농사를 지으십니다. 수도원은 2004년 쓰나미와 2005년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초 만들기 워크숍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젠키(Jenky)라는 청년 봉사자가 수도원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클라우디아 수녀님께서 용감하게 뛰어들어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젠키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불길은 수도원의 살림과 재산을 모두 삼켜 버렸습니다. 수녀님께서는 다행히 목숨을 건지셨으나 젠키는 3일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탄초와 부활초들이 녹아서 용암처럼 거리로 흘렀다고 합니다. 워크숍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녀님들께서는 설립자이신 글라라 성녀의 기도문을 기억하시며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글라라 성녀께서는 명상 중에 “저는 당신의 성스런 사랑에 기대어 오직 한 가지만 구할 뿐입니다. 당신의 뜻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하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ACN은 건물 재건을 위하여 **2만 유로(약 2,400만 원)**를 지원합니다. 수녀님들께서는 신앙의 증거로서 니아스 섬에 축복과 참 빛을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 구농수치 산(거룩한 산) 정상. 신자들은 이곳에 올라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 1년 전의 화재로 화상을 입으셨던 클라우디아 수녀님



© Magdalena Wolnik/ACN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분들

“저는 저의 독신, 청빈, 순종을 우리 주님께, 가르멜 산의 가장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수도원장님과 후임 수도원장님들께 거룩한 마음으로 서약합니다.”

필리핀 탐바칸(Tambacan)의 원죄 없으신 성모 성심 가르멜 관상 수녀회 수녀님들께서는 서원 때 이 겸손한 서약을 하십니다. 밤바다 기도로 보냈던 그 긴 세월이 마침내 결실을 거두는 순간입니다. 로렐리에 마리아 리보온(Lorelie Marie Liboon) 수녀님께서는 치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알려진 필리핀의 북부 루손(Luzon) 지역에서 ‘탕잉 야만’(Tanging Yaman), 즉 삶의 보배를 찾으셨습니다. 로렐리에 수녀님께서는 여러 다른 수녀님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도와 희생으로 교회에 봉사하라’라는 하느님의 부름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느끼셨다고 합니다. 가르멜 수녀회 수녀님들의 기도는 전 세계에서 그 힘을 발합니다. 특히 수녀님들께서는 선교 활동을 하시는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마릴린 파시나바오(Marylin Facinabao) 수녀님께서는 “너는 여전히 나의 작은 아이이다. 네가 첫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나는 너의 손을 잡고 있었다.”라고 시작하는 성가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마릴린 수녀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무엇이 되고 싶은지 끊임없이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사제가 되고 싶었어요.”라고 수녀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어느 수녀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 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강렬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바람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큰 파장으로 마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수녀님께서는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기로 결심하십니다.

탐바칸 가르멜 수녀회의 수녀님들은 모두 하느님의 이끄심을 가슴 깊이 느끼신다고 합니다. 수녀님들은 자신들의 삶이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진정 부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부르는 하느님의 소명을 겸손히 따릅니다. 최근 열두 분께서 종신서원을 하였고, 수녀님 스물한 분이 새로 입회하시어 교육을 받으십니다. 여전히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하느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수도원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도 세 분의 젊은 여성들이 수도원에 입회할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르멜 수도원에는 모든 이들이 독방에서 생활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을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수도원 공간이 부족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연로하신 수녀님들께서 숙소가 위치한 2층까지 계단을 오르시기 불편해 하십니다. 일층에 새로 수도원을 증축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ACN은 **2만 유로(약 2,400만 원)**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비올레타 바나와(Violeta Banawa) 수녀님께서는 가르멜로 가는 여정을 떠올리십니다. 수녀님께서는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의 소산이 아닙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처음에는 저에게 부족했어요.”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어떻게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배웠고 서서히 하느님의 뜻을 깨우쳐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수녀님의 여정에 동참하여 이웃을 돕는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 순간까지 희생과 봉사의 삶을 놓지 않으시는 모습. 자그마한 수도원 내 정원 출입구에서 서원과 행복, 엄숙하지만 기쁨이 넘치는 봉쇄수녀원의 삶 ▼



호로드나 신학교에서 전해지는 감사의 인사

첫날에는 성전에 모여 지난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기도를 바칩니다. 이튿날에는 서품식이 열려 새로운 사제 세 분과 부제 한 분이 탄생합니다. 벨라루스 호로드나(Grodna) 신학교 총장이신 로만(Roman) 신부님께서 ACN으로 서신을 보내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호로드나 신학교는 ACN으로부터 19,800유로(약 2,400만 원)를 지원받아 신학생 33명을 교육했습니다. 신학생들은 성실히 학업에 임하며 양로원과 고아원, 장애인 시설의 어린이들을 방문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한 부제님께서서는 브라질로, 다른 부제님께서서는 카메룬으로 1년 동안 파견되어서 가난한 어린이들을 가르치며 사목활동을 하십니다. “저희는 날마다 ACN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로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신앙적,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활짝 여는 ACN을 이웃 사랑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하시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국제 ACN 대표
요하네스 헤르만

Johannes Freiherr
Heereman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 ACN은 지난 3년 간 아홉 곳의 새로운 지부가 출범하는 등 현재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교회가 점점 큰 위기에 빠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은 경첩에서 빠져 있다.”라는 햄릿의 대사는 이제 점점 더 이 시대에 걸맞은 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폭력과 복수 대신 사랑을 근본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치유를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비단 후원금의 금액이 늘어나는 것만이 그 증거는 아닐 것입니다. ACN의 설립자 베렌프리트 신부님께서 ‘백만 달러짜리 모자’로 불리던 당신의 유명한 모자를 손에 들고 강론을 하실 때 종종 ‘한 젊은이가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바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수많은 후원금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진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제와 수도자의 삶은 돈과 황금과 같은 지상의 보물들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비를 통해 수도자들이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베렌프리트 신부님께서서는 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ACN은 여러분의 후원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이러한 성직자들을 위해 사용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첩을 붙여 서로를 잇는 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느님 나라와 우리를 이룰 수 있는 시대를 말입니다. 저의 말이 조금 과장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ohannes Heereman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께 여러분과 함께 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고통받고 박해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고통받고 박해받는 이들을 가슴 깊이 품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들의 자유와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진정한 신앙의 삶

ACN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아픔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을 알 수 있음에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진심으로 기쁩니다.

독일에서

큰 그림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저는 <사랑의 메아리>를 통해 세계 교회와 연대할 수 있음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메아리는 제가 고통받고 위기에 처한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큰 그림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ACN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시는 한 방법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두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 때에 ACN을 통해 세계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을 따르는 길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누구도 가지 않는 길

여러분은 누구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서 누구도 주지 않는 것들을 베푸십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노고에 수천 배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호주에서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www.churchinneed.or.kr
@aidtothechurchinneed
@acn_korea
info@churchinneed.or.kr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67 8층
전화: 02-796-6440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